

# 80's 신촌 리허시 공복길

신촌역



경의중앙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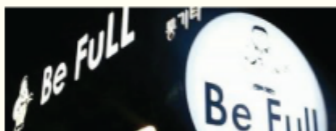


## 80's 신촌, 추억의 명소 5

### 1. 비풀 Be Full

신촌 기차역에서 명동거리 방향에 있는 신촌의 라이브카페. 벽에 김현식과 김광석의 사진이 이 오래된 카페의 성격을 말해준다. 20년 넘게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는데 주로 70~80년대 포크송을 통기타와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준다. 공간이 작아 울림소리가 좋고 한번 찾은 이들은 금세 단골이 되는 카페다. 천장과 가게 구석구석엔 대니얼 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다.

주소\_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9  
문의\_02) 393-0687



### 2. 미네르바 Minerva

1975년부터 신촌 명동거리에서 4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커피집.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선 '우리나라 원두커피의 원조', '진짜배기 사이폰 커피집'으로 불린다. <독수리다방>이 신촌을 대표하는 만남의 장소였다면 <미네르바>는 커피와 클래식, 낭만을 숭배하던 청춘들의 아지트였다. 유럽의 시골 다방 같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를 간직하고 있다. 2015년에 '서울시 미래유산'에 선정되었다.

주소\_서울시 서대문구 명동길 18 2층  
문의\_02) 3147-1327



### 3. 우드스탁 Woodstock

1960년대 전세계 히피 문화의 상징이자 팝 문화의 키워드였던 <우드스탁>의 이름을 딴 라이브카페. 1990년 신촌 뒷골목에 문을 연 이곳은 록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다.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빼곡한 LP판, 벽면 가득한 낙서들이 공간의 역사를 말해준다. 김현식과 유재하, 김광석 등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션이 종종 다녀간 곳으로 알려져 있다. 1990년대 신촌이 배경이 된 tv 인기드라마 <응답하라1994>에 등장하기도 했다.

주소\_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7길 28-6  
문의\_02) 334-1310



### 4. 비틀즈 Beatles

신촌을 대표하는 정통 LP바, 올드 뮤직 바. 가게 안에 만장 가까운 LP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청곡이 있다면 LP로 노래를 듣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. 고급 오디오 장비를 갖추고 있어 라이브홀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음질을 자랑하는 곳이다. 올드락과 팝, 락, 오래된 가요를 훌륭한 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. 1990년 5월부터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.

주소\_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7길 34-6  
문의\_02) 323-6385



### 7. 스튜디오70's Sunny Mars

주소상 마포구에 위치해 있지만 '신촌 권역'에 있는 LP바. 단골들은 이곳을 <신촌 스튜디오70's>라 부른다. 신촌블루스도 여러번 공연한 카페 인에는 소실가이자 영화감독 유하가 직접 적은 헌사가 있다. 노래를 신청해 LP나 CD로 들을 수 있고, 활동했던 뮤지션과 문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라 많이 좋다면 그들을 만날 수 있다. KBS2 TV의 예능 프로그램 <대화의 화열> 배철수 편을 촬영하기도 했다.

주소\_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171  
문의\_02) 322-0262





80's 신촌,  
그 골목길로 접어들다



# 김현식 골목길

서대문구

## 80's 신촌, 김현식 골목길

1980년대 대중문화 중흥기, 젊음의 거리 신촌은 한국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태동하는 장소였다. 신촌에서 시작된 그 꿈틀거리는 에너지는 1990년대 폭발적인 힘으로 한국 대중문화 전반으로 퍼져나갔다. 그 중심엔 1986년 4월 신촌에서 결성돼 앞서가는 음악과 실험정신으로 우리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은 밴드 '신촌블루스'가 있다. '신촌 블루스' 원년 멤버인 김현식은 신촌을 무대로 활동하며 신촌의 전성기를 이끌었다. 김현식과 신촌블루스가 신촌을 근거지로 빼어난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신촌만의 분위기와 정취로 가득했던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. 당시 연세대 글다리로 불리던 신촌 길목, 지금은 명물거리라 불리는 골목 초입에 자리했던 록카페 레드제플린은 신촌블루스가 결성된 곳이자 매일밤 그 시절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졌던 곳이다. 레드제플린 외에도 록카페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던 러시, 신촌시장에서 동교동 가는 길목에 있었던 '츄바스코', 신촌기차역 근처 록카페 ROCK 등 신촌 곳곳 카페들이 뮤지션들의 아지트가 됐다. 세월의 여파로 대부분은 사라졌지만, 김현식이 종종 다니며 공연했던 우드스탁을 비롯해 신촌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은 여전히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다. 김현식의 발자취와 그 시절 신촌을 떠올릴 수 있는 오래된 가게들, 그리고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켜 온 보석같은 공간들은 다시 신촌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.

글 차윤주기자

**김현식** 1958.1.7 - 1990.11.1

한국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주류로 끌어올린 1980년대에 활동한 전설적 싱어송라이터로 포크, 팝, 펑크, 재즈, 소울, 락, 블루스 등 다양한 음악을 특유의 목소리로 구사하며 독보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한 당대 최고의 가수였다. 그의 대표곡으로는 <사랑했어요>, <아무말도 하지 말아요>, <비처럼 음악처럼>, <떠나가 버렸네>, <언제나 그대 내 곁에>, <여름밤의 꿈>, <내 사랑 내 곁에>, <추억 만들기> 등이 있다.

## 제5차길



### 김현식 스토리텔링 골목길

가수 김현식의 발자취를 따라 80년대 신촌의 정취를 느끼며 그를 추억하는 짧은 시간여행



### 80's 신촌, 추억의 명소5

- 통기타라이브공연을 만날 수 있는 **비풀 Be full**  
명물거리 45년 자리지킨 사이폰 커피집 **미네르바 Minerva**
- 김현식이 다녀간 **우드스탁 Woodstock**
- 신창곡을 들려주는 정통 LP바 **비틀즈 Beatles**
- 신촌 블루스가 공연했던 **스튜디오 70's Sunny Mars**



## 느껴보길

## 들어보길



### 신촌 플레이버스

김현식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공간. 영상방명록과 음악감상, DJ박스로 꾸며져 있는 이색체험 버스로 신촌의 랜드마크



### 버스킹존 그리고 김현식 조형물

창천문화공원에 설치된 김현식 조형물 앞에서 기념샷 남기고, 다양한 버스킹 뮤지션들의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확행 포인트



## 즐거워보길